

백두산

김태복시조집

연변인민출판사

책임편집: 리태학

책임교정: 김홍화

图书在版编目 (C I P) 数据

白头山: 朝鲜文 / 金太福著. —延吉: 延边人民出版社,
2007. 6

ISBN 978-7-80698-935-7

I. 白… II. 金… III. 诗歌-作品集-中国-当代-朝鲜
语 (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27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 (2007) 第073583号

白头山

出版: 延边人民出版社

(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 <http://www.ybcbs.com>)

印刷: 吉林市京源印刷厂

发行: 延边人民出版社

开本: 880×1230 1/36 印张: 5.25 字数: 100千字

标准书号: ISBN978-7-80698-935-7 (民文)

版次: 2007年6月第1版

2007年6月第1次印刷

印数: 1000册

定价: 16.00元

如发现印装质量问题, 影响阅读, 请与印刷厂联系调换。

하객이 올리는 글

—머리말을 대체하여
한 춘

공자는 《잘 아는 친구가 먼곳에서 찾아오니 그 아니 기쁠소냐》라고 하면서 친구의 방문기별을 받고 무릎을 쳤다 한다. 김태복시인과 필자는 교분이 꽤나 깊은 처지다. 절친한 문우의 창작집 출간소식을 듣고 필자는 남보다 기뻐다. 필자가 남보다 기쁜것은 세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는 환갑나이가 넘어 중국에서 첫 시집(시조시집)을 낸다는 것은 그야말로 축하할 일이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문인이 작품집을 출판한다는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예전에는 지명도가 높지 못하면 출판사 선제에 들기 어려웠다. 지금은 자비출판이 성행하여 돈이 없으면 그 또한 출판선제에 올리지 못한다. 이런 형편에서 석양의 인생길에 작품집을 출판한

다는것은 너무도 축하할 일이다. 두번째 원인은 김태복시인은 교편을 잡고 하해하고 출국하는 등 바쁜 인생길에 불행하게도 눈질환의 고통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눈질환이 그의 창작충동을 식히지는 못했다. 물론 이 작품집에 수록된 작품은 눈질환이 있기전에 창작한것도 있겠지만 투병기간에 창작한 작품이 적지 않다. 문학은 문인들이 질병을 전승하고 문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일종의 보약이다. 셋째로는 김태복시인과 필자는 다 중국조선족들이 산재하는 지역에서 생존의 터밭을 걸구고있지만 민족정신의 가장 깊은 골을 밝혀주는 등불이라고 할수 있는 시조발을 경운하여 온 지우라는데 정이 더 기울어진것이다.

필자는 시조시를 애착은 하지만 시조시를 별로 많이 창작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시조를 많이 좋아한것만은 확실하다. 대학 1학년때 시조시 102수를 습작한 옛 《밀천》이 있어 드문드문 시조를 창작해보았다. 다른 시조시인들도 마찬가지로 필자가 시조를 애독한데는 우리 민족이 세상에 내놓을수 있는 문학은 다른것이 아니라 바로 전통문화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시조문학일것이다. 이것은 중국의 5언, 7언시, 일본에는 와카나 하이쿠 같은 민족 특유의 정형시가 있는데 비하여 우리 민족 특유의 정형시가 바로 시조라는데 그 영구한 문학적의의가 있는것이다. 이와 같은 민족정신의 대맥이 흐르는 시조시가 중국조선족문단에서 확고한 자리를 차지한 시간은 오래되지 않는다. 지난

세월속에 거의 망각의 바다속에 던져진 보물, 그냥 빛을 내지 못하고 흙속에 묻혀있는 옥석이 다시 해빛을 보고 빛을 발광하게 되는데는 시조를 애착하는 많은 문인들의 끈끈한 창작활동과 갈라놓을수 없다. 이제는 연변이나 흑룡강에 시조문학사들이 세워지고 시조시를 지향하는 문우들을 묶어 시조문학발전에 힘을 바쳐 오고있다. 김태복시인의 시조시가 바로 우리 문단의 시조문학향연에 올리는 진품이며 명품이며 상품이다. 더우기는 우리 문단에 개인시조시집출판량이 아주 적은 형편에서 김태복의 시조시집은 시조를 사랑하는 많은 독자들에게 정말로 좋은 선물로 될것이다.

한국의 한 평자의 말을 빈다면 시조는 《흐름이 있고 굽이가 있고 마디가 있고 풀림이 있는(流曲節解) 가형》이다. 이와 같은 정형에 우리 민족정신의 근간을 심은 시조문학이 생활화가 되는것은 민족시가인 시조의 영구한 발달을 추진하는 근거의 힘으로 될것이다. 우리 생활주변에서 발생되는 작고 큰 사항들이 다 시조로 옮겨질수 있는 소재로 된다. 그러한 소재를 다루어 읽는이의 가슴에 잔잔한 감동을 심어주고 잔잔한 진동을 실어다 준다면 그것이 바로 시조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그림자다. 산재지구에서 문학활동을 진행하는 문우들에게 있어서 완벽한 시조문단을 구성하기에는 시조시창작진이 아직은 미약하다. 그러나 더 넓은 저변에서 시조시를 파급하는 일은 불가능한것이 아니다. 하다면 시조시를 고창하는 시조시

인들이 생활시조시 진흥에 전력으로 진출하는것이 선제조건으로 된다.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을 전력 추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길을 따라서는 후행자들이 많아지게 마련이다. 이제 김태복시인의 시집 발간과 더불어 다 함께 생활시조시 보급의 길에 동참한다면 시조의 생활시는 널리 보급될것이다.

마감하여 독자들에게 이 시조집뒤에 올린 한국의 시조평론가 리현석의 해설문을 일독할것을 권한다. 그의 해설을 통해 김태복시조를 더 가깝게 접근할수 있기때문이다.

김태복시조시인의 시심이 그냥 식지 않을것이라는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2006년 5월 28일

자 서

시조를 쓴다는것은 철저히 자기와의 고독한
직업이지요.

언어의 절제를 근본으로 하는 절대공간의 그
릇에다 소재를 담그고 3장6구속에 깃들인 흐름
(流), 굽이(曲), 마디(節), 풀림(解) 률격의 의미를
재음미해보면 그 맛이야말로 천하일미지요.

그래서 배달민족언어의 뻗속에서 우려낸 겨레
시조는 영구불멸한것인가봅니다.

고국과 고향을 그리던 간절한 맘으로 우리 민
족의 노래인 시조창작에 열심하겠습니다.

근심스런 눈길을 받아가며 조울던 자욱으로
얼룩이 간 책을 세상에 내놓는 저의 맘을 헤아려

웃으며 읽어주십시오.

자상히 해설까지 써주시면서 저를 이끌어주신
시인이며 평론가이신 대전시문인협회 회장 리현석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시조문학에로 이끌어주신 시조문학 대상
을 받으신 경남문인협회 회장 리우걸선생님께 감
사를 드립니다.

저로 하여금 시조학습에 박차를 가하게끔 고무
격려해주신 문우 림국웅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란시에서 저작

차 례

고향행

- 고향행 1 / 3
- 고향행 2 / 4
- 고향행 3 / 5
- 고향행 4 / 6
- 고향행 5 / 7
- 고향행 6 / 8
- 고향행 7 / 9
- 고향행 8 / 10
- 고향행 9 / 11
- 고향행 10 / 13
- 고향행 11 / 14
- 고향행 12 / 15
- 고향행 13 / 16

반도한

- 매듭 / 19
- 백두산 / 20
- 벌 / 22
- 들국화 / 23

고향은 저 멀리 / 24

금수(禽獸) / 25

강 1 / 26

강 2 / 27

강 3 / 28

강 4 / 29

내 얼굴이 / 30

납함(呐喊) / 32

한국열

망향초 / 35

위장결혼 / 36

밀항(密航) / 37

불법체류 / 38

초청사기꾼 / 39

페스카마호의 여음 / 40

서울거지 / 41

공포의 서울 1 / 42

공포의 서울 2 / 43

공포의 서울 3 / 44

공포의 서울 4 / 45

옥이에게 1 봄 / 47

옥이에게 2 여름 / 48

옥이에게 3 가을 / 49

옥이에게 4 겨울 / 50

고뿔하는 시장거리

꿀불건 / 53

조선족마을 / 54

들꽃 / 55

투전드라마 / 56

로인회놀이터 / 57

동화이미지 / 58

로씨야하숙집로맨스 / 59

과녁 / 60

고뿔하는 시장거리 / 61

도시 뒤편길 1 / 62

도시 뒤편길 2 / 63

별과의 속삭임

인심락엽 / 67

꿈이야기 / 68

벽화 / 69

우수의 강 / 70

별과의 속삭임 1 / 71
별과의 속삭임 2 / 72
별과의 속삭임 3 / 73
조룡남과 시 / 75
정해룡선생님과 화답 / 76
체념의 강 / 77
죽은이를 만나고있다 / 78
집 / 79
침묵 / 80
종소리 / 81
외사과(外事科)일별 / 82
소리 / 83
속세의 꽃 / 84
추억의 푸념조 / 85
세기말일의 념원 / 86
충성 / 87.
기다림 / 89
시대 / 90
어용문인 / 91

월야명상(月夜冥想)

인생열차 / 95

월야명상(月夜冥想) / 96
꽃 / 98
석림(石林) / 99
추석모멘트 / 100
문우를 보내며 / 101
시 / 102
시를 잃은 중국교포 / 103
감자 / 104
소주방 / 105
수중의 산(山) / 106
꽃 / 107
그리움 / 108
일점홍 / 109
달콤해진 슬픔 / 110
사랑 1 / 111
사랑 2 / 112
사랑 3 / 113
사랑 4 / 114
세월지는 소리 / 115
영생의 터널 / 116
여운 / 117
봄언덕 / 119

바람내 / 120

가족걱정, 제자걱정

삶 / 123

향기 / 124

정(情) / 125

고독 / 126

삶의 간이역 / 127

부탁 / 128

부정(父情) / 129

기원 / 130

편지 / 131

인(忍) / 132

푸념 / 133

결실의 이미지 / 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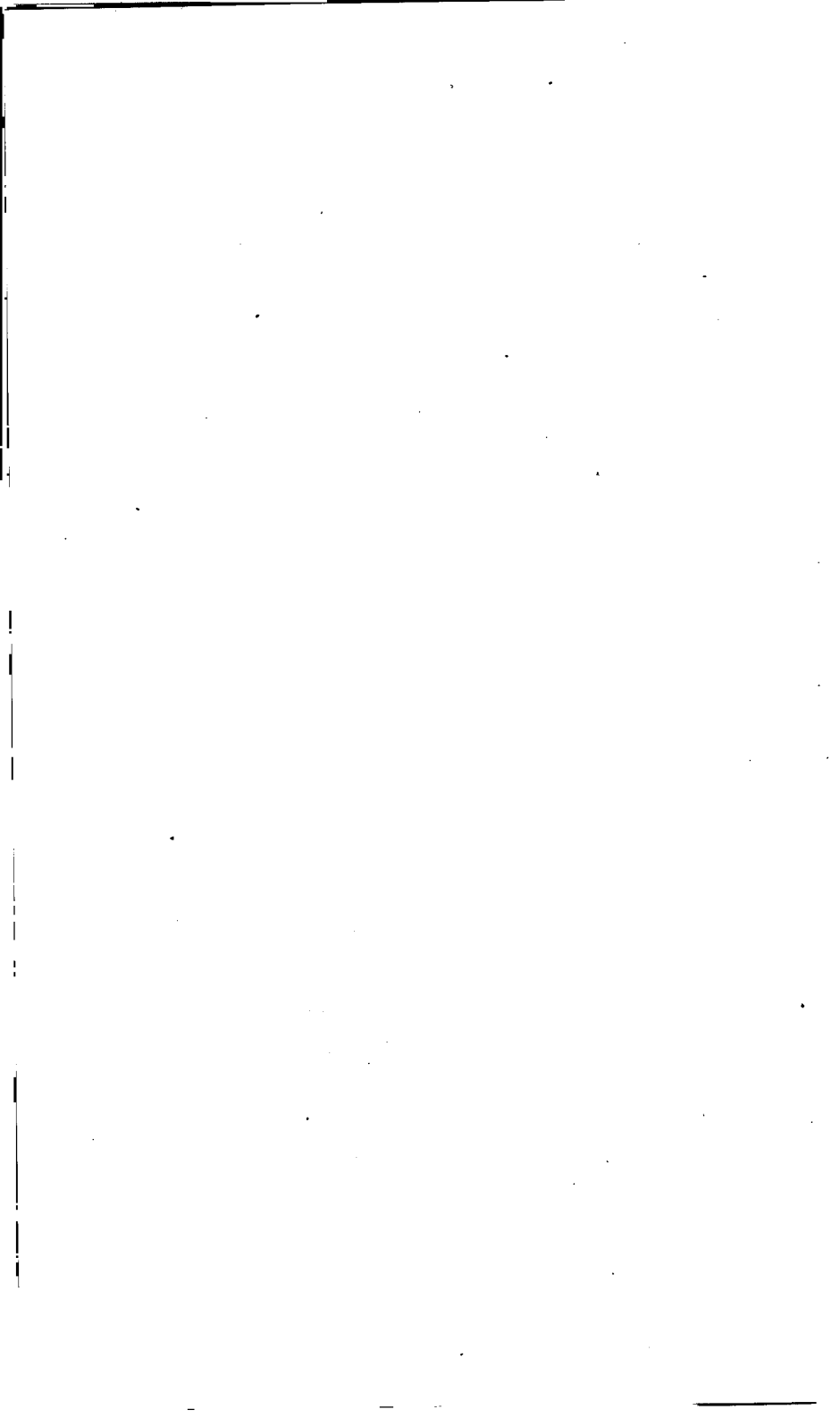
메아리 / 135

절규 / 136

망향을 노래하며, 일상을 새기며 / 137

고 향 행





고향행 1

-54년만에 고향의 품에 안기면서

관념의 서랍속에
죽지 접혀 한평생

고향 그 이름 부르다
천애에서 목이 쉬였다

섬이 된 고독의 54년은
눈물에 잠기고

눈에 밝힌 고향땅에
살פות이 귀를 대면

빠른 걸음, 바쁜 일상
거품 빼는 가쁜 소리

저도 몰래 외워본 고국
두글자는 따갑다.